"아파트 평수까지 물어본 차 감독, 진심 느껴졌다"

-옹알스 조준우

자원봉사 현장 재능기부로 인연
차인표가 먼저 다큐영화화 제안
한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제작

배우 차인표가 제작, 연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굿펠라스:옹알스와 이방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 | TKC픽쳐스

넌버벌 코미디로 세계를 사로잡은 옹알스와 배우 차인표가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 이들이 의기투합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에 영화계에서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을 쏟고 있다.

차인표가 제작과 공동 연출을 맡은 '굿펠라스:옹알스와 이방인'(가제)은 2007년부터 해외 무대에서 꾸준한 성과를 낸 7인조 개그팀 옹알스의 이야기다. 서로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차인표와 옹알스의 만남이 먼저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이들이 영화를 한국어와 영어 두 버전으로 제작한다는 사실에서는 해외 시장을 향한 기대의 시선이 더해진다.

차인표와 옹알스의 만남은 5년 전쯤 시작됐다. 가까운 연예인들과 자주 자원봉사에 나서는 차인표의 활동에 옹알스가 간간히 재능기부로 참여한 게 인연의 시작이다. 하지만 서로 가깝게 친분을 나누지는 않았다. 영화 기획을 본격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말이다. 옹알스 리더 조준우에 따르면, 차인표는 작년 11월 "옹알스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 다같이 만난 자리에서 차인표는 옹알스가 왜 10년간 세계무대에 도전했는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이고 돈은 어떻게 벌며 어느 동네에 사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조준우는 "아파트 평수까지 물어볼 만큼 우리에 대한 거의 모든 걸 궁금해 했고, 전부 듣더니 우리의 도전을 다큐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건 우리도 꿈꾸던 일이라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옹알스는 '맨땅에 헤딩' 같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영화 '국가대표'와도 닮았다는 생각을 해왔고, 언젠가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던 터였다.

조준우는 "차인표 감독님은 옹알스의 도전과 그 과정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말했고, 우리도 동의해서 영화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굿펠라스'의 주요 내용은 옹알스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도전하는 과정이다. 이미 영국 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국내 개그맨으로는 처음 호주 멜버른 코미디페스티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영국 웨스트엔드 장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과보다 새로운 '도전'과 그 '과정'을 다루는 영화가 옹알스의 지향점이다.

촬영은 올해 2월 옹알스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담는 것부터 시작했다. 영화 제작은 차인표가 미국에서 설립한 영화사 TKC픽쳐스가 맡았다. 차인표는 지난해 미국에서 영화 '해븐퀘스트'를 제작한 데 이어 이번 '굿펠라스'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 모든 촬영스태프는 미국인이다.

옹알스의 기대도 상당하다. 리얼 다큐멘터리인 만큼 가감 없이 자신들의 상황을 보일 수 있다는 마음과 함께 "꼭 성공스토리일 필요 없이 우리의 도전을 소개하자"는 각오도 크다. 이들은 라스베이거스 공연 오디션이 진행되는 4월 현지로 떠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안방극 돌아온 박서준 까칠한 재벌 2세 변신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출연
박형식·이준호도 잇따라 복귀

박서준

'훈남 연기자'들이 잇달아 안방극장 나들이에 나선다. 박서준, 박형식, 이준호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전작에서 모두 화려한 성적을 냈던 터여서 신작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높다.

박서준은 5월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출연한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는 재벌 2세와 비서의 로맨스 이야기로, 박서준은 모든 것을 갖췄지만 자기애로 뭉쳐 조금은 이기적인 재벌 2세를 연기한다. 이번 작품을 통해 박서준은 변신에 나선다. 앞서 출연한 KBS 2TV '쌈, 마이웨이'에서 꿈과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의 아픔을 실감나게 표현해 호평을 받은 박서준은 신작에서는 까칠하지만 속은 따뜻한 '츤데레' 캐릭터로 미워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박형식은 더욱 강해진 남성성으로 여심을 공략한다. 전작 '힘쎈여자 도봉순'에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훌륭히 소화하며 박보영과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던 그가 이번에는 '브로맨스'를 선보인다. 그 무대는 4월25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수목드라마 '슈츠'다. 미국에서 시즌7까지 방영된 드라마의 리메이크작에 출연하는 그는 기억력이 뛰어난 신입 변호사 역할을 맡아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역인 장동건과의 호흡을 통해 발휘될 그의 변신은 연기자로서 다시 한번 각인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준호의 성장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KBS 2TV '김과장'의 활약으로 연기대상에서 중편드라마부문 우수상을 받은 그는 '아이돌(2PM) 출신 연기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 종영한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로 주인공 신고식을 치른 이준호는 5월 방송하는 SBS '기름진 멜로'로 기세를 이어간다. 그는 스타 셰프에서 하루아침에 동네 중국집 주방장이 된 뒤 벌어지는 상황들을 유쾌하게 풀어간다. 장혁, 정려원 등 상대역의 라인업도 그의 활약에 힘을 실어준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그룹 신화가 2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직라이브홀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스무 살' 신화 "환갑 파티 열 때까지"

신화, 데뷔 20주년 기념 팬파티 개최
오늘 '올 유어 드림즈' 리메이크 공개
스페셜 앨범 발표 후 亞 투어 계획도

"이제 스무 살, 앞으로 남은 '환갑 파티'도 기대해 달라."

이름 자체로 '신화'가 된 그룹 신화가 또 한번 신화를 써내려간다. 최장수 아이돌 그룹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이들은 "신화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이돌 그룹으로는 유일하게 멤버 교체나 해체 없이 꾸준히 앨범을 발표해온 이들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이들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 한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다.

24~25일 이틀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신화 트웬티 팬파티 올 유어 드림스'가 그 시작이다. 이들은 25일 공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주년을 자축했다. 리더 에릭은 "어느덧 (그룹이)스무 살이 됐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팬클럽 신화창조와 소속사 스태프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전진도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1998년 3월24일 데뷔한 신화는 1집 '해결사'를 비롯해 총 13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국내 아이돌 그룹 가운데 최다 정규앨범 발매 기록이다. 아이돌 그룹 처음으로 독립 레이블 '신화컴퍼니'를 설립했고 상표권도 소유하고 있다.

신혜성은 "지금까지 여섯 멤버들이 변하지 않고 같이 무대를 할 수 있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팬들의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팬들도 그 부분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우는 신화로 인해 팬들의 기부 문화도 바뀌었다고 자랑했다. 민우는 "축하용 '쌀 화환'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며 "우리를 보고 후배들도 좋은 걸 함께 해나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신화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다. 26일 공개하는 데뷔 20주년 기념 기프트 싱글 '올 유어 드림즈'를 새롭게 리메이크했고, 뮤직비디오도 18년 만에 재현했다. '올 유어 드림즈'는 2000년 발표한 3집 수록곡이다.

멤버들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위기의 순간도 떠올렸다. 데뷔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끝날 때다. 멤버들의 군 복무로 인한 4년간의 팀 공백도 위기로 꼽았다. 전진은 "가장 많이 불안했던 시기였다"고 돌이켰다.

"이제 스무 살이 된" 신화는 미래에 더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들은 올해 스페셜 앨범을 발표하고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앞으로 30년, 50년 또 다른 '최초 기록'을 준비하면서 "멤버들과 약속한 '환갑 파티'도 꼭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유아인, 칸 레드카펫 밟나

영화 '버닝' 경쟁부문 출품 준비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이 5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연배우 유아인이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최고 권위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축제. 매년 5월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당대 전 세계 유명 감독들의 신작을 소개하며 다양한 영화적 흐름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늘 주목받고 있다. 국내 영화계뿐 아니라 관객도 매년 경쟁부문을 비롯한 각 섹션에 초청받는 한국영화의 면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올해 경쟁부문 상영을 노리는 한국영화 가운데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버닝'. 투자배급사인 CGV아트하우스의 한 관계자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창동 감독이 이전 영화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번 작품에 대한 현지의 기대감도 있어 공식 초청과 관련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해본다"고 덧붙였다. 자연스레 유아인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아인이 '옥자'에 출연한 스티븐 연, 신예 전종서 등과 주연한 '버닝'은 세 명의 젊은이가 겪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린다는 것 외에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올해로 71회째를 맞는 칸 국제영화제는 5월8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컷

홍윤화·김민기 '미리 신혼여행'

코미디언 커플 홍윤화와 김민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홍윤화는 "쥬뗌므 파리♡ 날씨까지 사랑스럽네"라는 글을 남겼고, 김민기는 "그냥 지금처럼 영원히"라며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공개했다. 에펠탑을 가운데에 놓고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술을 쭉 내밀고 있다. 11월17일 결혼을 앞두고 미리 즐기는 신혼여행이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홍윤화 #김민기 #예비부부 #파리여행

이정연의 꼬리물기

또 팬들에게 빚진 워너원 진심 어린 활동으로 갚길

그룹 워너원이 지난 일주일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컴백과 동시에 각종 기록을 써가며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막말 방송사고' 논란에 휘말려 하루하루를 '바늘방석'에 앉아 보냈다.

한 인터넷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 멤버들은 방송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왜 자유롭지 못한가" "우리는 왜 정산 받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스케줄이 빡빡한가" 등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말들 사이에 흘러나온 욕설과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며칠 뒤 팬들이 디지털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영상을 보내 육성을 분석한 결과, 멤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팬들이 나서 해결하지 않았더라면 워너원의 앞날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을 것이다. 덕분에 논란은 수그러들었고, 비난의 화살도 그쳤다. 워너원은 논란이 불거진 후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이제 워너원에게 필요한 것은 초심이다.

워너원은 '국민 프로듀서'들이 '유료 투표'로 데뷔시킨 그룹이다. 1표라도 더 받기 위해 '헝그리 정신'으로 버텼던 이들이 인기 좀 얻었다고 해서 카메라가 켜졌을 때와 꺼졌을 때의 행동이 전혀 다르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 팬들은 워너원의 앨범부터 MD상품을 구입하며 응원한다. 음원차트 1위를 만들기 위해 매일 새벽 '스밍 총공'(스트리밍 총공격)을 하고 있다.

이제 워너원의 차례다. 활동 기한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남은 9개월 동안 팬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프로의식을 가지고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9개월간 워너원은 또 다른 '수확'을 얻지 않을까.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